가족 갈아타기

(마태복음 12:43~50)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족 갈아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족 갈아타기'
오랫동안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방송의 말씀을 접하신 후에 좋게 여기셔서 본인의 설교에도 십자가 생활화를 핵심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이 바뀌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한 가지만 하면 목회자로써 완벽할 수 있다. 태 목사만 끊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어도 부족할 판에 자꾸 죽자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은 십자가 복음을 향하는데 사모님께서 만류하시니 어쩔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목사님과 저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집 아이는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스스로 세상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옆집 아이는 십자가를 생활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상태에서 진짜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와 힘을 합쳐서 전도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의 "가족 갈아타기"의 의미입니다.

가족 갈아타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더 크게 체감하게 하시는 일이야 말로 성령님의 전공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마치 출생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등에서는 출생의 비밀이 단골소재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주인공을 알고 보니 재벌가의 자제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자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갈아타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재벌의 가족만 되어도 살 떨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갈아타기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우선적인 대상으로 모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업이나 자녀들의 학업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더 우선적인 대상으로 체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삶의 변화 또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꼭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아비와 두 가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두 아비란 하나님과 마귀이며, 두 가족이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생물학적이나 사회적으로 맺어진 가장 강한 유대관계를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관계라면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관계이며, 사회적 관계로는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나

입양한 자녀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며 가족을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사탄 즉 마귀를 아비로 하는 가족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갈아타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혈육상의 가족과 사회적 차원의 가족을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십니다. 본문 46~50절까지 나타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학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아비로 삼은 가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별 볼일 없다든지 일류대학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들은 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전례를 따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으며 요셉은 노예에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돈 못 벌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은 아비로 삼은 마귀의 말을 스스로의 생각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안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가족 갈아타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입니다. 다만 이것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인격이라는 나무에 맺히게 됩니다. 이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을 이루는 근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인격이 가족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연관성은 예수님께 있어서 가족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면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가족 갈아타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가족 갈아타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에 속하게 되느냐, 마귀를 아비로 하는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가족의 측면에 매이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인격의 나무이냐에 달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이 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읽지 않은 43~45절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와 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를 비유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곧 하늘과 연결 되어있다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곧 그 표적을 발판으로 삼아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구했던 그리스도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들은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중들에 대해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면 하늘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만을 보았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마음에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으로써는 화가 날 상황입니다. 귀신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차서 갈 곳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뒤에도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신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일곱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귀신이 이러한 상태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모셔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듯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모셔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셔 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 갈아타기와 연결이 됩니다.

가족의 기준은 인격이 어떠한 나무인가에 달렸습니다. 하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써의 인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격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계획하고 느끼는 감정을 갖습니다. 마음에서 ‘나’라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 자아의식이 깨어있는 마음이 인격입니다. ‘나’라는 자아의식은 관계를 맺을 구체적인 대상 즉 ‘너’가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팥 없는 찐빵처럼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없으면 ‘나’라는 의식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상대에 따라 자아의식이 달라집니다.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태어난 후로는 아빠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을 대상으로 나는 사원이라는 자아의식을 갖습니다.

이처럼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아의식의 근본을 구성하는 대상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아의식을 첫 번째로 주는 대상과의 연결 상태가 바로 인격을 판가름합니다.

다른 예로 나인 성 과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나’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자아의식은 모두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자아의식 위에 구성되는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첫 번째 관계를 맺은 외아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대상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자리에 돈을 담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돈이 있으면 “나는 부자다”라는 자아의식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혹은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너의 자리에 들어서서 자아의식을 갖게 되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돈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대상을 찾을 때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너의 대상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는 자아의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이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선하고 좋은 열매 또한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아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이며 십자가 생활화의 효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내나 남편 앞에서는 배우자로써의 자아의식을 우선시했습니다. 또 자녀 앞에서는 부모로써의 자녀의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늘 가족이 된 것이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서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면 귀신을 아비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은 나의 자아의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아비로 여기는 동안에는 내가 관계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에 귀신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관계가 귀신이 머무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돈 많은 것이 최고이고 권력이 높은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에 비하면 이러한 일들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고작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만 다 할 수 있다면 50살에 죽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은 모두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면서 듣고 배운 일들로부터 생겨난 생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의 시작은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던 나를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세상을 '너'라는 대상으로 삼고 만들어진 자아의식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능력 또한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써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짜릿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활하게 하고 번성하게 되기만을 바라지만 이러한 마음은 마귀에게는 최고로 좋은 잔치자리가 됩니다. 마귀는 일곱 귀신을 불러서 삶의 모든 관계

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직장관계는 마귀의 천국이 되고 그로 인해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자아의식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가족 갈아타기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의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대상은 우리가족, 우리나라, 우리선생님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만이 첫 번째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에는 배우자도 자녀도 심지어 나의 몸조차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갈아타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 바다에 빠져있는 관계들을 하늘로 건져 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생물학적이고 사회적 차원으로 맺어진 가족은 사위일체를 이룬 하나님의 가족으로써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혈육으로써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내 마음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대상들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가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루게 되었다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자가 하늘 가족이 된 상태에서만이 다시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갈아타기는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너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관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시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이야 말로 재벌가의 자녀임이 밝혀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가족 갈아타기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맺고 있던 모든 너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나도 없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서 가족 갈아타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열매 맺는 하늘 나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